



중국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김득중
문등 청문 서양삼 유한공사 사장

● 중국의 인삼생산 및 수출입 현황

1. 중국의 인삼생산

가. 중국의 고려삼생산

중국에서 고려삼을 최초로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길림성 무송현에서 420여 년 전으로 우리나라의 재배역사와 거의 비슷하다. 중국의 고려삼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통계자료의 수집이 어려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몇 개의 자료로 볼 때

1989년부터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삼 생산국이 되었다. 1996년 중국의 총재배면적은 18,400ha에 생산량(수삼)은 약 28,000톤으로 우리나라 생산량은 35,000톤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의 고려삼 주산지인 동북3성(길림, 요녕, 흑룡강)으로 고려삼 재배면적 점유율은 1991년 3성중 길림성 70%, 요령성 15%, 흑룡강성 15%였던 것

이 1998년에는 길림성 65%, 요녕성 25%, 흑룡강성 10%로서 길림성과 흑룡강성은 약간 감소한 반면에 요령성이 10%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생산량은 길림성 80%, 요녕성 15%, 흑룡강성 5% 길림성이 다수확을 하고 있다.

동북3성은 대부분 산지(山地)를 개간하여 재배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정부에서 홍수범람,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삼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산지개간을 일부 규제하고 농경지재배를 권장하고 있다. 중국의 경작방식은 1931년까지는 우리나라처럼 개인이 자유롭게 재배, 가공 및 판매를 하였으나 1932년 일본이 침략하여 1945년 광복되기까지 일본인이 회사를 설립하여 판매권을 빼앗아 장사를 하였다. 1945년 이후 다시 재배가 자유로워졌으나 1949년 중국정부수립 이후 국영삼장(國營參場), 개인삼장 3종류의 경작방식체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작면적 규모는 국영삼장과 집체삼장은 5-10ha로 대규모이나 개인삼장은 자본부족으로 소규모이다. 중국은 근년에 해가림 개량과 광폭상면(廣幅床面)에 식재하여 일반적으로 5-6년 근에 수확하고 있는데 m²당 2-3kg을 수확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다수확을 하고 있다. 특히 해가림은 우리나라와

달리 아치형으로 하여 청색 폴리에틸렌필름을 덮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덮어 수광량을 조절하는데 최근에는 일부 차광막을 덮어 수광량을 조절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수삼으로 소비되지 않고 거의 전량을 홍삼과 생진삼으로 가공하므로 수확기인 9-10월에만 채굴하는 것이 특징이다.

나. 중국의 서양삼생산

(1) 중국이 서양삼 재배역사

중국에서는 미국인삼(Panax quinqueforium. L.)을 서양삼(西洋參)이라고 하는데 고려인삼(Panax ginseng C. A. Mayer)과 식물분류학상 종(種)이 다르다. 중국에서 서양삼을 약용으로 사용한 역사는 1929년에 처음으로 들어와

29년이 되었다. 서양삼은 미국 및 캐나다가 원산지로 1948년에 강서성 노산식물원에서 최초로 파종하여 1953년까지 재배하였으나 그 후 멸종되었고 1975년에 다시 종자를 입수하여 중국과학원에서 길림성 과학위, 중국과학원 특산연구소, 중국과학원 약용식물개발소 등에 위탁하여 시험재배를 하고 그 후 길림, 흑룡강, 요녕, 북경, 강서, 섬서, 복건, 운남등 성시(省市)에 재배시험연구를 하도록 하였는데 1980년 이후에 요녕, 길림, 북경, 산둥, 섬서 성시에서 재배에 성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중국의 서양삼재배지

중국의 서양삼재배지는 북위 32-45° 사이로 온대반습윤형기후에 속하여 미국 및 캐나다산지의

기후와 거의 비슷하다. 중국재배지역의 대체적인 기후, 토질 및 재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동북(東北)지역

① 재배분포지

- 길림성 집안, 통화, 장백, 정우, 무송, 휘남, 매화구, 영길, 화전, 교화, 반석, 동와, 안도 현시
- 흑룡강성 : 목릉, 녕안, 오상, 상지, 연수, 칠대하현시
- 요녕성 : 환인, 본계, 관전, 청원, 신빈현시 동북3성의 재배면적은 전국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② 기후 및 토양

북위 40~45° 사이의 해발 200~800m지대로 주로 삼림지를 개간하여 재배하고 있으며 습윤 또는 반습윤대 계절풍기후로 연 평균기온이 2~8℃로 비교적 추운지방이다. 서양삼은 고려삼보다 혹한에 약하여 동해를 입기 쉬운데 1976년, 1981년, 2003년에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큰 피해를 입었다. 연 일조시간은 2,200~2,600시간, 적산온도는 2,000~3,400시간, 연 강수량은 600~900mm이며 무상기간은 110~150일이다. 토양은 암갈색의

【표 1. 중국의 인삼생산량】

연 도	검삼 생산량(톤)	수삼 추정생산량(톤)
1983	1,390	5,560
1985	2,058	8,232
1987	3,349	13,396
1989	4,356	17,424
1990	3,884	15,536
1991	2,322	9,287
1992	4,475	17,900
1993	4,800	19,200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9)

【표 2. 무송현의 경작방식별 재배규모】

(면적 : 만m²)

구분	국영 삼장	향진 삼장	임업기관 삼장	기관기업체 및학교삼장	기관합자 삼장	개인 삼장	계
개소	5	25	97	17	4	9,424	9,572
재배면적	85.0	87.0	73.6	18.6	28.0	141.8	434.0

자료 : 1990년대 초, 무송현 제1국영삼장

사양토 또는 양토로서 대부분이 삼림지를 개간한 곳이므로 부식함량이 매우 많으며 토양산도는 PH 5.5~7.0이다.

③ 재배방법

일부 직파하기도 하나 대부분 2년생 묘를 이식하여 (2.2제) 4년 근에서 수확한다. 해가림은 고려 삼과 같이 비가 새지 않도록 소형 아치형 해가림을 설치한다.

(나) 화북(華北)지역

① 재배분포지

- 부경직할시 : 회유현
- 하남성 : 서섬현
- 산동성 : 문둥, 래양, 래서, 서하, 액현, 영성, 복산현시
- 하북성 : 택주, 정현, 행당현시

화북지역의 재배면적은 전국의 30~35%를 차지하고 있다. 산동성의 주산지인 문둥시의 재배역사는 23년임

② 기후 및 토양

북위 35~40° 사이의 해발

200m이하의 농경지에 재배하고 있으며 난온대습윤기후이다. 연평균기온은 8~12℃로서 우리나라의 중부지방과 비슷하다. 연 일조시간은 2,600~2,800시간, 적산온도는 3,400~4,500℃, 연 강수량은 600~800mm이며, 무상기간은 150~200일이다. 토양은 사양토 또는 양토이며 농경지에 재배하므로 유기물 함량이 적다. 토양산도는 PH 5.5~7.0이다.

③ 재배방법

농경지에 직파 또는 이식(1.3제 또는 2.2제)하여 4년 근에서 수확한다. 해가림은 일부지역에서는 비가 새지 않는 투광해가림을 설치하기도하나 주산지인 산동성 동부지방에서는 미국 및 캐나다와 같이 평지붕 식으로 하여 주로 갈대밭을 덮는데 일부는 차광 망을 덮기도 한다.

(다) 화중(華中)지역

① 재배 분포지

- 섬서성 : 유파, 용현, 남정현

- 사천성 : 무계현

화중지역의 재배면적은 전국면적의 약 1%를 차지하고 있다.

② 기후 및 토양

북위 32~35° 사이의 해발 600~800m의 고지대 농경지에 재배하며 북아열대습윤지대기후이다. 연 평균기온은 10~14℃이며 연 일조시간은 1,400~1,800시간, 적산온도는 4,000~4,500℃, 연 강수량은 600~1,500mm이며 무상기간은 180~205일이다. 토양은 암갈색의 사양토 또는 사질양토로서 농경지에 재배하므로 유기물함량이 적다. 토양산도는 PH 5.5~6.5이다.

③ 재배방법

산간 농경지에 직파 또는 이식하여 4년 근에 수확한다. 해가림은 비가 새지 않는 대형 아치형 또는 수평식으로 설치한다.

(3) 중국의 서양삼생산

중국의 서양삼 주산지는 길림, 요녕, 흑룡강성의 동북3성과 산동성의 동부 및 북경직할시의 회유현으로 20년 이상의 재배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4년 전국 생산량(건조삼 기준)은 약 80톤(길림성산 40~50톤)이었으나 1996년에는 전국 총 재배면적 약 300ha에 생산

량(건조삼)은 약 200톤 이였으며 최근에는 급증하여 600톤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급증하는 이유는 다른 작물에 비하여 고소득 작물인데다가 특히 서양 삼은 고려 삼보다도 2-2.5배의 고가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서양 삼의 일부가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나 대부분은 생건삼으로 가공하여 크기, 등

급별로 선별하지 않고 벌크형태로 거래되고 있는데 이유는 서양삼의 주산지인 미국 및 캐나다산의 체형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앞으로 서양삼의 제품이 다양하게 개발되리라고 보는데 복건성정부에서는 2004년 복건성 복주(福州)시에 5,500만 불을 투자하여 제품공정을 설립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2. 중국의 인삼수출 현황

중국의 연간 인삼류 수출규모는 1996-98년은 2,400여 톤에 50백만불 정도 였으나 1999년에는 4,000톤 규모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출쿼터제가 폐지되면서 업체간의 경쟁으로 수출량은 증가하였으나 수출단가는 1996년도 kg당 20.62달러에서 1999년은 12.84달러로 크게 하락하였다. 주 수출

[표 3. 중국의 국별 수출동향]

구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홍콩	1,658	33,365	1,688	35,392	1,583	29,036	2,923	35,288
일본	348	9,748	379	11,602	187	5,306	218	3,406
말레이시아	14	267	10	167	5	96	43	802
싱가폴	42	622	39	1,125	24	1,024	128	1,168
한국	43	62	29	666	15	213	4	43
대만	78	1,194	22	496	74	1,052	36	187
벨기에	25	557	8	176	50	734	90	1,136
독일	34	348	4	70	55	761	170	1,777
프랑스	12	118	10	168	35	378	58	482
이탈리아	48	1,114	68	1,575	115	2,060	113	1,943
스위스	31	344	28	571	25	515	10	180
캐나다	3	160	26	497	5	197	26	517
미국	60	1,503	89	2,741	134	3,704	307	6,161
기타	2	46	24	405	17	262	22	204
계	2,398	49,448	2,424	55,651	2,324	45,338	4,148	53,294

자료 : 중국해관통계

【표 4. 중국의 인삼류 수출동향】

(단위 : 톤, 천불)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서인삼	1,416	30,922	1,697	36,793	1,619	32,276	2,689	38,089
산 삼	-	-	0.9	22	6	82	0.1	2
기 타	982	18,526	727	18,825	699	12,980	1,459	15,203
인 삼								
계	2,398	49,448	2,424	55,651	2,324	45,338	4,148	53,294

자료 : 중국해관통계

대상국은 홍콩, 미국, 일본, 동남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유럽(이탈리아, 독일)등 화교거주지를 중심으로 40여 개국에 달하고 있다.

3. 중국의 인삼 수입현황

중국의 인삼수입은 주로 남방도시의 수입상이나 대리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뿌리삼 수입시장규모는 33백만불 정도로 형성되어 있으며 매년 큰 폭의 증감은 보이지 않고 있다. 2001년 수입

금액은 전년대비 6%증가한 33,983천불 이었으며 물량은 2,860톤이었다. 뿌리삼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캐나다(30,324천불)와 미국(2,607천불)으로부터 수입되는 서양 삼으로 2001년의 경우 전체 수입실적에서 97%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주로 유통 판매되고 있는 서양삼 브랜드로는 패, 강부래, 만기패, 금일래 등이 있는데 서양 삼을 수입하여 홍콩이나 중국에서 포장한 것으로 특

히 “패”의 경우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아 관세 때문에 주로 홍콩을 통하여 수입된 북미산 서양 삼은 남방지방(광둥성, 복건성, 절강성)에서 저렴한 중국산과 혼합하여 일부는 재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4. 중국에 인삼재배 진출전망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은데다가 인삼을 오랫동안 재배하여 연작장

【표 5. 중국의 뿌리삼 수입실적】

(단위 : 톤, 천불)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서양삼	2,426	36,720	2,774	33,010	2,505	31,696	2,819	33,039
산 삼	-	77	4	170	6	317	-	-
기타인삼	11	318	14	310	17	171	50	944
계	2,437	37,115	2,792	33,481	2,528	32,184	2,869	33,983

자료 : 중국해관통계

해로 적지가 적고 노동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노임이 비싸고 농자재비의 상승 등 재배여건의 악화로 인삼은 앞으로 더욱 소득 작물로서의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더욱이 WTO의 출범으로 앞으로 부득이 국내 인삼시장을 개방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인삼시장은 저가의 외국인삼 수입으로 재배면적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인삼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나라가 중국이며 그 다음이 서양 삼을 재배하여 주로 동남아시아에 수출하여 고려인삼시장을 잠식해가는 미국 및 캐나다이다. 중국의 현재 인삼재배의 여건은 우리나라의 1970년대 후반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의 인삼재배 여건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가. 장 점

- (1) 인삼재배 적지가 많고 토지임차료가 비교적 저렴하다. 산동성 동부지역(북위 36-38°)의 경우 토질은 사양토 또는 양토이고 기후는 우리나라의 중부지방과 비슷하여 적지가 많은데 넓은 밭을 임차할 수 있다. 연간 평당 임차료(2004년)는 250-300원이다.
- (2) 노동력이 풍부하고 노임이 저렴하다. 산동성 문등시의 경우 1일 노임(8시간기준)은 남

- 자가 2,500원-3,000원, 여자가 2,000원 수준이다.
- (3) 농자재 구입이 비교적 용이하다.
- (4) 같은 유교문화권으로 농촌의 생활문화가 우리와 비슷하고 농민은 비교적 순박한 편이다.
- (5) 우리나라와 가까운 거리로 교통이 비교적 편리하다.
- (6) 지방정부가 외자유치 때문에 비교적 잘 협조해 준다.

나. 단 점

- (1) 회사를 반드시 설립하여야 하고 외자기업법 및 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우리나라처럼 자유롭지 못하다.
- (2) 제세금, 수수료 및 기타비용이 많이 든다.
- (3) 언어가 통하지 않아 불편하며 통역이 필요하다.
- (4) 출입국시 불편하고 여비가 많이 든다.

이상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문제점과 중국의 인삼재배여건의 장단점에 대하여 고찰하였는데 고려인삼은 국내인삼시장 개방 시 중국에서 품질이 우수한 청정인삼을 생산하여 국내에 반입하거나 현지에서 홍삼, 태극삼등을 제조하고 제품을 다양화하여 중국 내에는 물론 외국에 수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고려인삼을 재배하여 국내에 반입은 우리나라 인삼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고려인삼재배의 외국진출은 여러 가지 조건이 유리한 북한을 생각할 수 있으나 아직 농업투자관계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합의사항이 없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중국의 실정으로서 는 고려 삼보다는 서양 삼재배가 유리하다. 서양 삼의 생건삼가격(2004년)은 고려 삼의 2.5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중국의 대외개방 및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향상으로 서양 삼의 선호와 함께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연간 수요량은 건조 삼으로 3,000톤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어 서양 삼 재배가 상당기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서양 삼의 대부분 수요자가 중국인과 화교인데다가 중국의 생산량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중국산보다 고가인 북미산과 치열한 경쟁관계가 될 것이다. 수요는 완만하게 증가하는데 중국산이 크게 증가할수록 북미 산의 가격은 점차 하락하여 채산성 때문에 미국 및 캐나다의 재배면적이 감소 될 것으로 보인다. ●